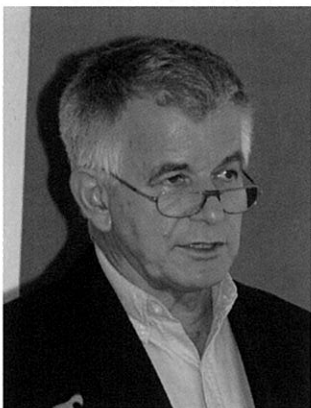




한솔제지, 디자이너·인쇄인 위한 CMS세미나 개최 컬러 거장 돈 허체슨 초청 40년 CMS 경험 공개

한솔제지는 지난 9월 14일 을지로 본사 23층 Hi-Q홀에서 월간 인쇄계와 공동으로 디자이너와 인쇄인을 위한 CMS(Color Management System)세미나를 개최했다.

자료제공 | 한솔제지



돈 허체슨(전 Gracol 위원장)

CMS는 모든 그래픽 장비에서 동일한 컬러를 재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으로, 컬러 표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. 한솔제지 마케팅팀과 월간 인쇄계에서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모니터를 사용해 컬러를 교정하는 디자이너와 인쇄기를 통해 실제 인쇄물을 출력하는 인쇄사간의 갈등

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준비됐다.

세미나는 1부 인쇄인(생산품질관리담당), 2부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각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. 메인 강사인 돈 허체슨(Don Hutcherson)씨가 해외 선진국의 CMS사례 및 성공·실패 요인과 해결방법에 대해, 타라TPS의 장덕수 매니저가 국내 인쇄환경의 특성과 CMS사례에 대해, 한솔제지 전성재 차장

(인쇄박사_ISO/TC 130 Korea 위원장)이 한솔제지 인쇄표준화와 CMS활동에 대해 소개했다. 특히 돈 허체슨씨는 현재 미국에서 광고 대행사, 출판 및 인쇄사들을 대상으로 컬러 컨설팅을 하고 있는 컬러매니지먼트 분야 40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보유한 세계적인 거장이다. IDEAlliance(International Digital Enterprises Alliance Inc.) GRACoL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돈 허체슨씨는 ISO표준에 의거해 IDEAlliance G7™방법론을 창시, 사진분야의 그레이밸런스 이론을 인쇄분야에 접목시켜 새로운 캘리브레이션의 기준의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.

한편, 이번 세미나에는 두산동아, 팍컴, 재능인쇄 등 대형인쇄·출판사와 CJ제일제당,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디자인팀 및 국내 유명 기획사 대표 및 팀장으로 구성된 한솔 디자인커뮤니티 회원 80여명이 참석했다. 세미나에 참석한 고객들은 “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인쇄 및 컬러표준화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매우 기뻐했다”면서 “인쇄인과 디자이너들이 서로의 입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”고 밝혔다. ↻